

벼멸구·흑명나방 등 '비래해충' 발생 증가세...예찰·긴급방제 총력

- 고온 지속·방제 소홀 시 다발생, 벼 집중 고사 가능성 높아
-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 합동 현장 예찰...발생 상황에 따른 대책 수립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전국 주요 벼 재배단지 및 관찰 재배지*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한 결과, 벼멸구·흑명나방 등 주요 비래해충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적극적인 예찰과 철저한 방제를 당부했다.

*작물의 생육 및 병해충 발생 상황 등을 관찰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

최근 전남·광주 일부 지역에서 비래해충 발생이 크게 늘어 현재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가 긴급방제 및 확산 차단을 위한 예찰을 강화하며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짧은 장마 이후 8월부터 고온다습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국내로 유입된 비래해충의 세대 번식 주기가 짧아지면서 개체수 증가에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졌다.

특히 벼 알곡이 차오르는 '등숙기'에 해당하는 8월 하순부터 9월 초순에는 벼 포기 하단부를 살펴 붙어있는 해충 개체수를 확인하고, 포기 당 2~5마리가 발견되면 추가 방제해야 한다.

만일 적기에 추가 방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벼 생육 후기에 밀도가 급증해 지난 2024년에 나타났던 벼멸구 대발생 피해가 재현될 우려가 있다.

방제 시에는 반드시 등록된 약제를 안전 사용 기준에 맞춰 살포해야 한다. 이때 앞선 방제 때 사용했던 약제와 작용 기작(성분)이 다른 계통의 약제를 사용해야 약제 저항성을 방지할 수 있다. 고온 건조한 오후보다 기온이 낮고 바람이 약한 아침 시간대에 살포해야 방제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특히 벼 하단부까지 약제가 충분히 침투할 수 있도록 광역 방제기 활용을 권장하며, 방제 이후에는 밀도를 조사하는 사후 점검을 병행, 작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전국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8월 24일부터 9월 1일까지 지역별 비래해충 발생 상황 및 방제 후 밀도 조사 등 3차 현장 예찰과 전국 일제 예찰 조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주요 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발생 상황 및 방제 적기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해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노형일 국장은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이 협력해 전국 비래해충 발생과 방제 상황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라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적기 방제를 도모하고,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해 비래해충 추가 확산을 차단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1. 비래해충(벼멸구) 발생 생애

2. 벼멸구 세대 예측 및 방제 가능 기간

담당 부서	농촌지원국 재해대응과	책임자 담당자	과 장 지도관	정병진 (063-238-1040) 이경재 (063-238-1051)
				

1 증상 및 피해

- 벼멸구의 발생 및 피해는 일단 비래량에 의해 크게 좌우되나, 비래세대 성충으로부터 제1세대 성충이 발생하는 번식력은 해에 따라 다르다. 또한 제1세대 암컷 성충의 단시형 비율이나 천적의 밀도에 따라 변동이 심하다.
- 벼멸구의 흡즙은 천립중과 등숙률에 영향을 주어 수량을 감소시키며, 벼멸구의 증식은 분얼최성기의 벼에서 발육한 것이 가장 크다. 벼대의 아랫부분 주로 수면 위 10cm 부위에 서식하며 흡즙하여 벼의 생육을 위축시키고 둥근 멍석모양으로 말라죽게 되므로 그 피해를 '집단고사(Hopperburn)'라고 한다.



【벼멸구에 의한 고사】



【흡즙 중인 벼멸구】



【벼멸구에 의한 고사 증상】

2 발생 생태

- 주로 6월 중하순부터 7월 중하순에 장시형 성충이 중국으로부터 기류를 타고 비래하여 발생한다. 일단 정착한 다음에는 이동성이 낮다. 제1세대 성충은 암컷의 약 90%가 단시형이고, 제2세대 성충도 대부분 단시형으로 번식에 적합한 형질을 갖추고 있다. 제3세대 성충은 대부분 장시형이 된다.



【벼멸구 성충-단시형】

【벼멸구 성충-장시형】

- 벼의 생육 후기에는 세대가 중복되어 각 태가 혼재한다. 1세대 경과에는 25℃에서 27일(산란전 기간 4일, 난기간 9일, 유충 기간 14일)이 소요되며, 6월부터 9월 사이에는 24~34일 만에 1세대를 마친다. 성충 수명은 30일 정도이며, 단시형 암컷은 450개, 장시형 암컷은 380개 정도를 산란한다.



【벼멸구 알】



【벼멸구 1령】



【벼멸구 2령】



【벼멸구 3령】



【벼멸구 4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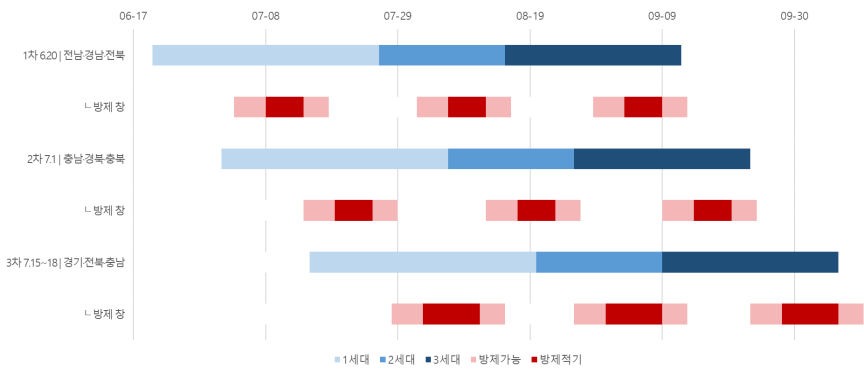
【벼멸구 5령】

- 단시형은 날 수 없으므로 인접한 벼 포기에서 증식 및 흡즙을 계속 함으로써, 벼논에 핵을 형성하고 집중적인 피해를 입힌다. 성충과 유충 밀도는 9월에 가장 높으나, 9월 하순부터는 벼의 생육단계가 벼멸구 증식에 맞지 않으므로 밀도가 감소한다. 벼 수확 후에는 겨울을 나지 못하고 죽게 된다.
- 7월 중·하순 비래한 벼멸구가 산란한 알이 부화하거나, 6월 하순 비래한 벼멸구의 제1세대가 형성되는 7월 하순 내지 8월 상순이 벼멸구의 방제 적기라고 할 수 있다.

붙임 2

벼멸구 세대 예측 및 방제 가능 기간

주 비래시기별 세대예측 및 방제 가능(적기) 기간



방제를 요하는 벼멸구·흰등멸구 밀도 기준(마리/20주)

구분		7월하순~8월상순	8월중순	8월하순	9월 상·중순
벼멸구	조생종	20	100	400	-
	중만생종	15	50(단시형 20)	100(단시형 40)	400
흰등멸구		100	400	400	400

* 기준: 2026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요강